

피 말리는 순위 싸움...KIA 끝없는 선발 고민



홍건희



고효준

선발 고민으로 시작한 KIA 타이거즈의 2016시즌이 선발 고민으로 끝날 기세다. 김기태 감독이 다시 선발 고민에 빠졌다.

지난 14일 한화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김 감독은 모처럼 선발진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보였다. 홍건희가 믿음직한 모습으로 돌아온 데다 남은 자리를 채울 후보로 고효준이 급부상하면서 드디어 김 감독의 선발 고민이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루도 가지 못한 구상이었다. 이날 경기 선발로 나와 앞선 부진을 털어내는 부활투를 선보이던 지크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온 것이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일단 지크는 엔

트리에서 제외됐다. 다시 또 선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16일 kt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지난주에 구상을 해봤는데"라면서 허탈한 웃음을 보인 김 감독은 17일 양현종을 선발로 해서 마운드를 운영한다. 그리고 롯데와의 원정경기는 18일 임시 선발, 19일 헥터로 꾸리고, LG와 만나는 주말 2연전에는 임시 선발, 홍건희가 준비된다. 18일 고효준의 등판이 예상되는 가운데 20일 고민이 남았다.

지크 빠진 자리 고효준 내일 임시 선발 예상 20일 선발 고민...퓨처스 무대 등 다각도 모색

KIA는 고민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선발 후보를 모색 중이다. 새 얼굴로 고려하고 있다. 최근 퓨처스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투수 박기철과 박상욱이 16일 문경 원정을 가는 대신 캠프인스필드를 찾았다. 이날 두 사람은 1군 선수단과 훈련을 하면서 컨디션 점검을 받았다. 두 선수의 엔트리 등록과 등판 여부는 미지수. 일단 지크를 말소하면서 비어있던 한 자리는 일단 투수가 아닌 야수로 채웠다.

월요일 휴식으로 불펜진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공격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김 감독은 "투수로 한 자리를 채울까 했는데 야수 쪽에서 등록을 했다"며 "루키" 최원준을 호출했다. 시즌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향방을 알 수 없는 순위 싸움 속 매일 결승전 같은 피말리는 승부가 펼쳐지게 된다. "비도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 한 김 감독은 "머리가 빠죽빠죽 서는 경기들이기 다리고 있다. 우리 선수들이 잘해낼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김 감독이 다시 찾아온 선발 위기를 넘기고 가을잔치로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천후 김주형 "1루 수비는 어려워"

덕아웃 T 특특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 16일 훈련 시간에 눈길을 끄는 방망이가 있었다. 덕아웃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10자루의

방망이. 그 끝에는 882에서 913까지 알 수 없는 세 자리 숫자들이 써 있었다. 금중을 자아낸 방망이의 주인은 김주형이었다. 숫자는 방망이의 무게였다. 똑같은 종류의 방망이라도 무게와 밸런스는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야구를 할 하기 위해 세밀하게 준비를 해 놓은 김주형은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방망이를 들고 있다"고 웃었다.

▲보기보다 어려워요 = 올 시즌 김주형은 유격수로 시작해 외야와 3루, 1루를 돌며 전천후 수비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 16일 kt와의 경기에서는 1루수로 출전을

한 김주형. 포지션에 대한 질문에 김주형은 3루보다 1루가 더 까다롭다며 1루 수비에 대해 설명했다. 김주형은 "야수들이 공을 던지는 스타일에 따라서 1루로 공이 많이 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직선으로 오기로 한다. 송구 스타일을 알아야 한다. 공을 보고 있는 방향도 투수와 다르고 또 힘있는 좌타자들이 많아 공이 정말 빠르게 온다"며 1루 수비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가 16일 오클랜드전에서 로스 넷와일러의 투구에 팔뚝을 맞았다. 왼팔 골절상을 입은 추신수는 남은 정규시즌 출전이 어려워졌다. /연합뉴스

추신수, 왼팔 골절 '시즌 아웃'

오클랜드전 투수공 맞아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투구에 맞아 왼팔뚝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추신수는 16일 미국 프로야구(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1회 2루수 땅볼, 3회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1-2로 끌려가던 5회 1사에서 이날 3번째 타석에 들어갔다. 추신수는 상대 선발 로스 넷와일러의 시속 141km 싱커 3구에 왼쪽 손목 근처를 맞았다. 고통스러워하던 추신수는 노마 마자라와 교체됐고, 검진 결과에 왼쪽 팔뚝 뼈가 부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텍사스 지역 신문 '달러스뉴스'는

"추신수가 정규시즌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와 비슷한 곳을 다친) 포수 로빈슨 치리노스가 복귀까지 60일이 걸렸다. 그리고 정규시즌은 이제 48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프 베니스터 텍사스 감독은 "(추신수의 공백으로) 우리 팀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추신수는 우리 구단에 꼭 필요한 선수 중 하나다. 끔찍한 장면이 나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경기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추신수는 올해 오른쪽 종아리 염좌(4월 10일~5월 20일), 왼쪽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5월 22일~6월 13일), 허리 통증(7월 21일~8월 5일)으로 앞서 세 차례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 FC 파비오·오도현·이옴 '베스트 11'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

광주 FC의 파비오, 오도현, 이옴이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지난 14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둔 광주 FC에서는 파비오, 오도현, 이옴이 명단에 포함됐다. 선제골을 기록한 외국인 공격수 파비오는 "승리의 선제골 주인공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정확한 슈팅을 시도해 골로 마무리했다"는 평가 속에 베스트 11이 됐다. 1-1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에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은 오도현도 "승리의 일등 공신이다. 헌신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



중요 전 극적인 헤딩슛 득점을 올렸다"는 호평을 받으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비수 이옴도 승리의 주역으로 평가 받았다. 이옴은 평가위원회로부터 "경기 내내 집중한 경기 운영과 안정적인 측면 수비를 발휘했다. 효과적인 공격 지원도 일품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산림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ECO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PTB7000 PTB5000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프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응접실,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산서버룸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념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ECO / 주식회사YHB / (주)YHB 토탈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운영실 광주 광안구 하남산단7번로 7(오선동) ☎062-952-6633 인산공진 전복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정동) ☎063-6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5년 이상 물로 가압해도 물이 새지 않고 먼지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시청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의트렌드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제원파일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네티디자인,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819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시험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